

2022년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여름이 시작되는 2022년 7월 8일과 9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워크숍 “2022년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렸다. 군산대학교에서 진지하게 발제와 토론을 하고 장자도에서 자유롭게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름다운 고군산군도를 둘러보고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자연에 감사하게 된 경험은 덤이었다.

사실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은 다소 막연한 주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에 주목하는지는 지난 시간을 함께 경험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끝난 하나의 순환, 즉 지난 4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기본소득운동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고 새로운 순환의 단초를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아이디어가 현실정치를 만난 지난 시간들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현실정치와 만난 건 2016년 무렵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또 하나의 파고를 만난 그때, 경기도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했고 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고 지지를 얻고자 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에게는 실현 가능한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실험들이 이야기되고 그 기류가 한국에서도 이어지면서 기본소득은 열기를 품은 담론이 되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미국 Y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실험계획으로 대표되는 고소득 국가들의 기본소득 실험, 그 실험(계획)들이 불러온 기본소득 정당성/실현가능성 논쟁이 활발해졌고, 국내에서는 2018년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8년 11월 13일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로 제정되었다가 2019년 6월 18일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되었다) 정책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드디어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2020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한국 주류 정치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새 국면을 열었다. 기존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기본소득을 대안정책으로 여기게 하는 한편의 흐름과 기존 사회보험제도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은 다른 한편의 흐름이 생겨났다. 두 흐름이 부딪혔고 그 충돌은 기본소득 찬반론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소득운동을 현실정치의 한복판으로 이끌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강렬하게 ‘참전’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현실정치에 두 가지로 ‘개입’했다. 한편으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을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들과 기본소득 논쟁에서 제기된 논점에 답하는 기고문들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대선의 중심의제로 삼고자 2020년 초부터 ‘기본소득 로드맵’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 성과는 2021년 8월 17일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보고서로 발표되었고 2021년 10월 29일 단행본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박종철출판사)으로 출간되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기본소득 찬반논쟁이 격화되었고 너무도 이르게 주요정치인들의 입장이 정리되어버렸다. 결국 불행하게도 우리는 노력의 기회를 사실상 잃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주류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지지를 분명히 한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고, 또 다른 기본소득 지지 후보는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였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일부 구성원들은 이재명 후보 또는 오준호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기본소득이 주요의제로 자리 잡길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정치의 룰대로 유력후보들 간의 구도와 공방 속에서 주요의제는 결정되었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정책선거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기본소득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오준호 후보만 선거 마지막까지 기본소득을 공약하



며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소수정당 후보의 불리한 언론환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순환을 위한 평가들 그리고 남겨진 과제

워크숍은 오후 2시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 230호에서 시작되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운영위원, 회원 31명이 함께했고, 안효상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평가와 방향을 논하기 위해 포문을 여는 발제들이 있었다. 발제자는 류보선 이사, 김찬휘 운영위원, 오준호 운영위원, 장시정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등 5명이었다.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는 신진연구자들의 기본소득 연구 방향을 소개했다. “좌파 통치성으로서의 기본소득”, “공유지”, “시대의 에토스로서의 기본소득의 가능성” 등의 관심 주제를 소개했고 기본소득 세상은 어떠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될지 등 기본소득 연구운동에 대한 고민과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류보선 이사는 “기본소득운동의 또 다른 출발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선거가 없었던 상황, 2년 가까운 노력의 성과로 내놓은 기본소득 로드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마치 공중분해된 듯한 로드맵에 대해 뼈아픈 지적을 했고, 기본소득 개념의 재정립, 또 다른 기본소득 실험의 발명과 기존 실험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 그리고 기본소득운동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헤어질 결심’과 결심의 결행 등이 앞으로 감행해야 할 지적 모험이라고 역설했다.



오준호 운영위원은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 기간을 보낸 소회를 밝히고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기본소득 정치 운동은 이재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세개혁과 연동한 충분한 기본소득 로드맵은 여전히 유의미한가, 기본소득 정치 운동은 기본소득의 전망을 납작하게 만드는가 등이 그것이었다.

김찬휘 운영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기본소득 ‘운동’의 확장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와 협력해온 활동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기본소득운동의 진정한 확장을 위해 기본소득운동의 ‘복원’을 촉구했다.

장시정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 의제의 부상이 내부보다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점, 우리의 기본소득 의제 운동이 미약했던 현실 등을 지적하며 새로운 방향 모색의 필요를 이야기했다.

발제 이후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양하고 광범했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당시 기본소득운동이 놓인 상황과 맥락,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따른 거시적 전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위치와 과제 등에 대한 것이었다.

금민 이사는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 액수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그림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상을 그리는 것이었다며, 낮은 수준에서는 지대추구경제의 교정과세 측면을 드러내고 기본소득이 분배원리에만 개입한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공유지분모델, 공동소유모델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록 성공한 결과를 낳지 못했을지라도 공유부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을 제시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분투”의 출발점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호 이사는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관망하는 태도였음을 확인했다. 구성원의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또 다른 일부는 오준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조직 자체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

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운동이 현실정치를, 특히 거대정당을 통해 만났을 때 야기되는 ‘순수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형중 운영위원은 특정 정당, 예를 들면 민주당과 어떤 관계인가보다 중요한 건 기본소득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라고 말하며 세금정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세금정치를 잘하고 불평등을 완화한다면 민주당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증세정치, 공유부 인식의 확산, 세금-기본소득 실험 등의 활동 방향을 잡는다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최승호 회원은 아직 우리 논의가 사회운동 측면이 강한 수준이라고 보며, 공유부의 구체화, 기존 소득보장정책 및 조세와의 관계 등이 우리에게 남겨진 연구과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김용수 회원은 복지국가보다는 성장국가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소득에 설득력을 가져다준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조민서 회원은 청년들이 감각하는 ‘기본’과 이재명의 소액 기본소득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기본보다는 공유부, 불로소득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권능 회원은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있고 기본소득의 사상적 토대가 짜깁기 같은 인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공유부의 실체와 기본소득의 목적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논의를 기대했다.

서정희 이사는 주권화폐, 사회보장제도와의 조응, 공유지분권 등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대통령선거에서 풀어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스스로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는 첫 자리로서 이번 워크숍이 자리한다고 평가했다.

2022년 7월 8~9일의 기본소득 워크숍은 어떤 합의된 의견이나 결정 없이 끝났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양한 평가들을 구체적 발화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고, 우리 안의 공통성과 차이를 고려하면서 새 순환의 긴 호흡을 시작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 “첫 자리”였다.